

지역 소식통

부안군, 테라릭스서버버스 시스템 개발 협약 체결

부안군은 미래 지속가능한 먹거리 수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연료전지 전문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육성과 전후방 지원을 위해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도비8억, 군비8억 등 16억원의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상용화지원을 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부안군에서 창업을 하거나 이전, 신·증설하는 국내의 수소관련 기업에 연간 최대 7천만원 이내의 기술개발과 장비사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제1호 수소연료전지 스타트업 테라릭스(주)는 지난 20일 서버버스(주)와 함께 친환경 수소버스 상용화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공개발 협약을 체결, 향후 서울과 수도권에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버스 1만대에 탑재할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안=김성진 기자

정읍 농기센터, 고추 적기 파종·육묘 관리 당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노지 고추 정식시기를 맞아 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정식 후 관리와 바이러스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노지 고추는 늦서리 이후 정식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노지 고추 정식 적기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으로 본 잎이 11~13매 나오고 첫 번째 꽃이 피거나 피기 직전에 심는 것이 좋다. 고추를 너무 일찍 심을 경우 늦서리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기 정식을 권장하고 있다.

모종은 정식 5~7일 전부터 외부 기온과 비슷하게 맞춰 미리 환경에 적응시켜주는 순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고, 정식 전날에는 모판에 충분한 물주기로 정식에 편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형 한옥클러스터’ 시동

군-전북대-한옥기업 협약... 관광·인력양성·기업유치·체험프로그램 한 곳에

전북 고창군과 전북대, 한옥전문기업들이 손잡고 고창군의 한옥 르네상스를 주도한다. 기존 한옥 관광산업에 더해 인력양성, 관련기업 유치,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고창형 한옥클러스터’가 시동을 걸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한옥전문기업이 ‘한옥산업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 회 의장 남해경 전북대학교학원협력장, 회 의장 남해경 전북대학교학원협력장 양성사업단 교수 김동인 한옥연 대표, 이계순 바움건설대표, 조승환 ZIN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옥산업의 산·학·관 윈윈 지원체계가 완성됐다. 전북대학교에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 체험장 운영을, 한옥기업은 생산과 전시판매를, 고창군은 기업유치와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고창군과 한옥관련 기업들은 국내최초 한옥산업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옥건축은 대표적 노동집약 사업이다.

숙련 기술인력을 비롯해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목재와 황토벽돌 등 한옥자재 생산업체 육성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도 고창캠퍼스에 한옥학과 정규학과와 한옥에코뮤지엄을 추진

한다. 해외수출도 확대하면서 고창이 전세계에 한옥을 알리는 전진기지가 된다.

실제 관련업체는 전북대학교와 협업체 알제리, 베트남에 한옥을 수출을 성사시켰고 상담이 진행 중인 곳만 10여개국 20여 단지에 이르고 있다.

고창군은 음성과 연계해 이어가 있는 한옥민속마을을 만든다. 한류스타 비와 공유가 머물고 간 한옥호텔은 반년치 예약이 동남 만큼 인기를 끌고 있고, 바로 옆 동리정사를 재현한 관소리체험관이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민속놀이체험장과 한옥게스트하우스 등도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 것”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도시·교통·환경 분야 13개 약속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정읍발전 정책공약 여섯 번째로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를 약속했다.



강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속광역시 역 격화와 주요 보호구역의 중앙분리대 정비, 도로경계석의 턱을 정비하고 공공 주차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 보행과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로는 “음식물 공유재 냉장고를 설치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장산 수목원 정비와 월영습지 및 솔타솔 생태관람지 명소화 등 내장산주수 주변 자연 생태환경을 가꾸어 생태 공원을 통한 힐링도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세면지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 전기버스 추가 도입, 전지자동차 보급사업과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예비후보는 ▲노후 상하수도 관로 개선 ▲문화가 있는 명품연차시장 기반 조성 ▲구간 시내버스 시간 운행 현실화 ▲택시 룬 등 시민교통 이용 지원 강화 ▲공용터널 시설 보완 등 모두 13개의 약속을 도시·교통·환경 분야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 암 조기 검진~투병자 의료비까지 ‘전방위 지원’

정읍시, 시내버스 6대 활용 홍보 주력

정읍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개별 통보한다. 검진은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지정 검진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무료 국가 암 검진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다.

위암·간암(발생 위험군)·유방암은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대상인은 50세 이상, 폐암은 54세~74세 중 고위험자(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등)가 해당된다.

특히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이면 매년 검진 대상이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비치된 분변 통을 이용해 검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6대 암(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으로 확진되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전북지역 암센터와 연계해 시내버스를 활용한 국

가 암 검진 홍보를 시작했다.

두 달간 정읍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6대를 활용해 실시하는 이번 홍보는 더 많은 시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버스 뒷면에는 ▲국가 암 검진!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 이라는 슬로건을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암 조기 발견 시 치료율은 높고 사망률은 낮을 수 있다”며 “특히,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알고 반드시 국가 암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063-539-6104 / 6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청년들,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전북 정읍시 청년 30명이 21일 정읍시 내장산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추진하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공약 등 청년정책에 동조한다’면서 공개 지지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정읍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청년 22명이 동참했으며, 이들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이학수 예비후보와 함께라면 가능하겠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예비후보가 도의원 8년을 역임하는 동안에 농촌문제의 소상

공인, 지역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원대책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발표한 청년 등 관련 공약들도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간 정읍 청년층의 인구는 2012년 26,035명에서 2021년 18,512명으로 무려 28.9%가 감소하는 심각한 상태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도 확대해 정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이 예비후보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사 우리가 도울게요” 네팔 계절근로자 98명 입국

농촌일손을 도울 네팔 계절근로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고창군에 무사히 도착했다.

21일 오후 전북 고창군이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네팔 계절근로자 98명 입국 환영식을 열었다. 단비처럼 찾아온 계절근로자들을 맞이하고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지역 농업인들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한달음에 달려가 먼저 인사를 청하는 농민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며 그동안 농사에 갖은 애를 먹었던 만큼

농가들이 계절근로자 제도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였다.

고창군에서도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올 초 법무부에 도입계획서를 제출해 모두 119농가에 근로자 645명을 배정받았다. 이후 네팔 마차푸차레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전북에서 처음 98명의 근로자가 입국하게 됐다.

입국한 네팔 계절근로자는 전원 자

국에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입국당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고, 선운산 유스호스텔 격리시설에서 1일간 격리를 거치고 음성판정을 받고 난 후 비로소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 1차 네팔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더 많은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올해 첫 입국 시례인 만큼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농번기 농가 인력난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